

식품영양표시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이용실태 — 20대 남녀를 중심으로 —

이강자·이윤희[†]

인천대학교 생활자원관리학과

Consumer's Recognition and Using State about Food-Nutrition Labeling System among Twenties

Kang-Ja Lee and Youn-Hee Lee[†]

Dept.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University of Incheon

Abstract

This study was accomplished to investigate the recognition and the using practices about food-nutrition labeling system of 20's consumers. Two hundred and fifty-four man and women were examined using the questionnair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subjects about food-nutrition labeling system was low (43.3%) and the using practices were even lower (18.1%).
2. The items considered as important were in the order of shelf life, manufactured date and cost.
3. The confidence score to the food-nutrition labeling system of consumers was 3.2 and was higher in the females compared to males.
4. The preferred method of food-nutrition labeling was in the order of picture and graphic type method, table type method and descriptive type method.
5. The expected effects of the current food-nutrition labeling system were easy to select foods for the prevention of the adult diseases and diet therapy.

From these results, we might propose the conclusion as follows: Food-nutrition labeling system might be a good source of nutrition information and the consumers' demand for disease-prevention and dietary purpose. Therefore, the agencies concerned should make an every effort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food-nutrition labeling system.

Key words : Food-nutrition labeling system, recognition, using practices, confidence, expected effects.

서론

식품제조 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신제품개발과 경제력 향상으로 수입의 증가, 여성인력의 사회진출과 핵가족화, 도시화 등은 가정의 식생활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Kim et al 1999). 식품은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 및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화이므로 생산, 유통·보관상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유통 구조가 복잡하고 생산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유입된 외국식품의 홍수 속에 합리적인 식품의 선택과 소비는 더욱 어려워지며 또한 제조업

자 및 유통업자가 가진 정보와 소비자가 가진 정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적절한 식품선택과 구매를 위해서는 식품제조업자와 TV 광고 등의 매체, 소비자 교육을 통해 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식품영양표시는 식품의 영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줌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식품선택이 될 수 있고(Beloian 1973) 국민의 영양에 대한 인식을 높여 줄 수 있는 교육의 도구로서도 가치가 있다(Levy & Schucker 1989).

Jones와 Weinmer(1997)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신문이나 잡지에서 정보를 얻기보다 식품포장상의 표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고하였다(Jones & Weinmer 1997).

Park과 Min(1995)에 의하면 식품영양표시제도는 식품에 관한 가격, 품질, 성분, 성능, 효력, 제조일자, 유통기간, 사용방법, 영양적 가치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쉽게 제품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Corresponding author : Youn-Hee Lee, Tel : 011-9081-9209, E-mail : yhlee7799@hanmail.net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Park & Min 1995). 식품의 표기사항은 정보제공 차원에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특히 소비자에게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 그러나 소비자 정보로서 식품영양표시가 제공된다 할지라도 표시의 오류나 악용, 관리나 규제의 어려움으로 소비자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Park 1991). 또한 소비자들이 식품영양표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다(Lee & Yeo 1996).

우리나라의 식품영양표시제도는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나, 식품영양표시기준이 식품위생법에만 사용하여 식품위생 면을 강조해서 식품제조업자 관리측면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 소비자 보호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달리 일본의 경우는 식품위생법, 영양개선법, 농림물자규격 및 품질표시법 등 다양한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다양한 품질표시제도를 바탕으로 소비자 중심적인 표시관리를 하고 있다(Kim et al 1999). 영양성분표시에 관한 규정으로는 식품에 특정 영양성분이 강화되었거나 특별 용도에 따라 유아용, 환자용에 적합하다고 표시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수영양표시제도와 가공식품의 영양성분을 보증하는 JSD(Japanese Standard of Dietetic Information)마크를 건강 영양식품협회에서 발행하는 가공식품 영양표시제도가 있다. 미국은 1975년에 이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식품제조회사들이 자발적으로 가공식품이나 포장된 식품의 serving size에 따른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칼슘, 철분의 함량을 표기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중 단백질과 7가지 비타민 및 무기질은 일일 권장량에 대한 백분율도 함께 표기하였고, 식품에 특별한 영양소를 첨가하였을 때는 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모방식품이나 콜레스테롤, 지방산에 대한 표기도 함께 허용하였다. 1987년에는 43%, 1988년에는 61%의 가공식품이 영양성분표시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현재에는 식품의약품관리청이 새로운 식품표시를 위한 규정을 작성해 1993년 26개에 이르는 법안을 공포 1993년에는 건강관련 강조표시 규정, 1994년에는 그 외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Federal Register 1973).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영양표시제도의 시행으로 최근에는 이에 대한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Park & Min(1995)의 조사에서는 식품영양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한 소비자 인식을, Kim et al(1997)의 연구와 Chang(Chang SO 1997, 2000)의 연구에서는 식품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신뢰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연구대상을 주로 주부들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부가 소비행동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식품영양표시제도의 본 취지가 우리 사회에 바르게 정착되고 이를 기초한 올바른 식품소비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미

래의 중심적인 소비자가 될 20대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 남녀들을 대상으로 하여 식품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을 분석하고 소비자의 효율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식품영양표시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내용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02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에 걸쳐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본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선행연구(Chang 1998, Park 1995, Chang 1996)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작성하였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7개 문항과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인지도와 각 항목별 중요도, 확인 정도 및 유용성에 관한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 9.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식품영양표시의 인지도와 확인 정도, 항목별 중요도, 유용성 검증은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one-way ANOVA에 대한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은 Table 1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 118명(46%), 여성 136명(54%)이었으며 연령은 25세 미만 178명(70%), 25세 이상 75명(30%) 이었다. 직업별로는 학생 184명(73%), 직장인 44명(18%), 무직자 13명(5%), 기타 11명(4%)의 순이었으며 기타에는 군인, 프리랜서, 운동선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거주지역은 서울지역 72명(28%), 인천지역 87명(34%), 기타 지역 95명(37%)으로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주거형태는 자택거주 200명(79%), 자취 34명(13%), 하숙 3명(1%), 친척집 거주 5명(2%)으로 대부분 자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이었다. 용돈은 10만원 이하 18명(7%),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72명(29%), 20만원 초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ategories	N(%)
Gender	Male	118(46)
	Female	136(54)
	Total	254(100)
Age	<25	178(70)
	25 ≤	75(30)
	Total	253(100)
Occupation	Student	184(73)
	Employee	44(18)
	Unemployed	13(5)
	The others	11(4)
	Total	252(100)
BMI	Weakness	108(46.2)
	Normal	109(46.6)
	Obesity	17(7.3)
	Total	234(100)
Place of residence	Seoul	72(28)
	Incheon	87(34)
	The others	95(37)
	Total	254(100)
Form of residence	One's own house	200(79)
	Board oneself	34(13)
	Boarding	3(1)
	Kinsfolk	5(2)
	Total	253(100)
Monthly personal expenses (1,000won/ mon)	<100	18(7)
	100~200	72(29)
	200~300	83(33)
	300~400	45(18)
	400<	33(13)
Total	251(100)	

30만원 이하 83명(33%), 40만원 초과 33명(13%)로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체 질량지수(BMI)는 허약인 108명(46.2%), 정상인 109명(46.6%), 비만인 17명(7.3%)으로 대부분이 허약인이나 정상인이었다.

2. 식품영양표시제도의 인지도

식품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인지도를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식품영양표시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43.3%로 식품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50%에 못 미치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Table 2. Degree of recognition about food-nutrition labeling

Categories	N(%)
Know well	27(10.6)
Know somewhat	83(32.7)
Do not know well	89(35.0)
Do not know	29(11.4)
No idea about that	26(10.2)
Total	254(100.0)

따른 인지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3.49로 남자의 2.91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았고 직업별로는 군인과 프리랜서 운동선수를 포함한 기타 직업인이 3.91로 학생 (3.11), 비직장인(3.08)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직장인에 비해 유의하지는 않으나 학생은 인지도가 낮았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서울지역 응답자의 인지도가 3.42로 인천지역 응답자(3.37)와, 기타 지역 응답자(2.94)보다 높았다. BMI에 따른 인지도는 허약인과 비만인 모두 정상인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었다.

Table 3. Degree of recognition about food-nutrition labeling by variables of subjects

Categories	Degree of recognition	
	Mean ± SD	
Gender	Male	2.91 ± 1.05 ^a
	Female	3.49 ± 1.09 ^b
		t = -4.34***
Occupation	Student	3.11 ± 1.14 ^{1)a2)}
	Employee	3.52 ± 1.00 ^{ab}
	Unemployed	3.08 ± 1.04 ^a
	The others	3.91 ± 0.70 ^b
		F = 3.29*
Place of residence	Seoul	3.42 ± 1.02 ^{1)a2)}
	Incheon	3.37 ± 1.13 ^b
	The others	2.94 ± 1.11 ^b
		F = 5.11**
BMI	Weakness	3.37 ± 1.11 ^a
	Normal	2.97 ± 1.13 ^b
	Obesity	3.29 ± 0.99 ^a
		F = 3.60*

* $p < 0.05$, ** $p < 0.01$, *** $p < 0.001$.

¹⁾ All values are Mean ± SD

²⁾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 < 0.05$, $p < 0.01$, $p < 0.001$.

3. 식품영양표시의 항목별 중요도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대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표시사항은 유통기한이 98.4%로 가장 높았고 제조연월일 88.2%, 가격 76.4%, 제조업소(회사명) 49.6%, 보관상 주의사항 49.2%, 식품첨가물 48.2%, 반품이나 교환 47.7%, 열량 및 영양소 표시 45.9%, 중량·용량 및 개수 43.9%, 원산지 42.5%, 조리법 34.4%, 사업자 등록번호 11.9% 순이었다. 이상으로 보아 20대 소비자들이 유통기한, 제조연월일 등을 우선순위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아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Park과 Min(1995), Chang NS(1997), Kim et al(1999)의 연구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항목들이었다. 1987년 남상덕의 조사에서도 소비자들은 식품에 대한 구매결정을 하거나 보관하는데 직접 관계되는 표시사항인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보관상 주의에 대한 정확한 표기를 요구하였다.

Table 5에 의하면 제품의 제조업소는 거주지역별로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등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그리고 거주형태별로는 자택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기타 형태로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연월일은 25세 이상의 응답자가 25세 미만의 응답자보다, 기타 지역과 인천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서울지역 거주자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가격은 자택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자택에 거주하지 않는 응답자보다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으며, 제품의 품질 검사와 합격표시는 25세 이상의 응답자가 25세 미만의 응답자보다, 학생이 기타 직업을 가진 응답자보다, 비만인이

정상인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와 보관 상 주의사항은 허약인이 정상인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반품이나 교환에 대해서는 비만인이 정상인보다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조리법에 대해서도 비만인이 허약인과 정상인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여성이 남성보다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으며, 열량 및 각 영양소 표시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25세 미만이 25세 이상보다, 비만인과 허약인이 정상인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현행 식품영양표시제도에 대한 견해

식품영양표시제도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식품선택에 참고가 된다'가 40.1%, 그다지 참고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17.1%이었다.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35.3%였으나 17.5%는 원하는 정보를 얻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기내용의 이해 정도를 조사한 결과 35.3%가 이해한다고 했으며 17.5%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표기내용을 읽어 본 후 식품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지 여부는 24.7%는 적용한다고 응답하였으나 28.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현행 식품영양표시사항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37.9%가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25.8%는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41.3%이었다(Table 7). 성별과 신체질량지수에 따라 이들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식품선택에 참고가 된다'는 여성이 남성보

Table 4. Degree of importance about food-nutrition labeling items

N(%)

Degree of importance	Manu- factured company	Manu- factured date	A time limit ofdistribution period	Price	Inspec- tion of quality	Weight, volume and the number	The place of origin	Attention for custody
Very important	44(17.6)	171(67.3)	224(88.2)	103(40.6)	79(31.2)	43(17.0)	34(13.4)	44(17.3)
Important	80(32.0)	53(20.9)	26(10.2)	91(35.8)	85(33.6)	68(26.9)	74(29.1)	81(31.9)
Average	77(30.8)	23(9.1)	4(1.6)	54(21.3)	67(26.5)	111(43.9)	104(40.9)	102(40.2)
Not important	35(14.0)	6(2.4)	0	4(1.6)	19(7.5)	26(10.3)	32(12.6)	22(8.7)
Not at all important	14(5.6)	1(0.4)	0	2(0.8)	3(1.2)	5(2.0)	10(3.9)	5(2.0)

Degree of importance	Returning goods or exchange	Method of cooking	Registration number of enterprise	Calory & nutrition indication	Food additives
Very important	44(17.5)	26(10.3)	11(4.4)	52(20.6)	47(18.6)
Important	76(30.2)	61(24.1)	19(7.5)	64(25.3)	75(29.6)
Average	93(36.9)	115(45.5)	84(33.3)	90(35.6)	91(36.0)
Not important	30(11.9)	40(15.8)	95(37.7)	35(13.8)	26(10.3)
Not at all important	9(3.6)	11(4.3)	43(17.1)	12(4.7)	14(5.5)

다, 비만인과 허약인이 정상인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표기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이상의 조사결과로 볼 때 현행의 식품영양표시제도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와 식품선택시 참고가 될 수 있음을

Table 5. Degree of importance about food-nutrition labeling items by variable of subjects

Categories		Manufactured company		Manufactured date		Price	
		Mean±SD		Mean±SD		Mean±SD	
Gender	Male	3.48±1.10 ^{1)NS3)}	<i>t</i> =0.77	4.58±0.68 ^{NS}	<i>t</i> =1.17	4.17±0.90 ^{NS}	<i>t</i> =0.55
	Female	3.37±1.10		4.47±0.87		4.11±0.82	
Age	<25	3.40±1.10 ^{NS}	<i>t</i> =-0.30	4.44±0.84 ^a	<i>t</i> =-2.94**	4.07±0.87 ^{NS}	<i>t</i> =-1.76
	25≤	3.45±1.11		4.72±0.63 ^b		4.28±0.81	
Occupation	Student	3.49±1.06 ^{N.S.}		4.51±0.80 ^{N.S.}		4.18±0.84 ^{NS}	
	Employee	3.37±1.16	<i>F</i> =2.28	4.59±0.76	<i>F</i> =1.59	4.05±0.86	<i>F</i> =1.61
	Unemployed	2.73±1.10		4.15±0.99		4.15±0.69	
	The others	3.00±1.41		4.82±0.40		3.64±1.29	
Place of residence	Seoul	3.09±1.24 ⁴²⁾		4.14±0.95 ^a		4.14±0.77 ^{N.S.}	
	Incheon	3.39±1.05 ^{ab}	<i>F</i> =6.16**	4.67±0.60 ^b	<i>F</i> =12.0***	4.24±0.85	<i>F</i> =1.35
	The others	3.68±0.97 ^b		4.68±0.71 ^b		4.03±0.92	
Form of residence	Own's own house	3.50±1.10 ^b	<i>t</i> =2.24*	4.53±0.81 ^{NS}	<i>t</i> =0.13	4.21±0.82 ^b	<i>t</i> =2.57*
	The others	3.12±1.10 ^a		4.51±0.72		3.87±0.94 ^a	
BMI	Weakness	3.43±1.15 ^{NS}		4.53±0.83 ^{N.S.}		4.18±0.89 ^{NS}	
	Normal	3.36±1.09	<i>F</i> =0.70	4.51±0.78	<i>F</i> =0.01	4.10±0.85	<i>F</i> =0.20
	Obesity	3.71±0.92		4.53±0.80		4.12±0.86	

Categories		Inspection of quality		The place of origin		Attention for custody	
		Mean±SD		Mean±SD		Mean±SD	
Gender	Male	3.48±1.10 ^{NS}	<i>t</i> =-0.87	4.85±0.41 ^{NS}	<i>t</i> =-1.50	4.17±0.90 ^{NS}	<i>t</i> =-1.96
	Female	3.37±1.10		4.88±0.37		4.11±0.82	
Age	<25	3.78±0.94 ^a	<i>t</i> =-2.16*	3.31±0.91 ^{NS}	<i>t</i> =-1.04	3.52±0.88 ^{N.S.}	<i>t</i> =-0.59
	25≤	4.07±1.08 ^b		3.47±1.17		3.60±1.09	
Occupation	Student	3.78±0.98 ^a		3.32±1.02 ^{N.S.3)}		3.48±0.93 ^{N.S.}	
	Employee	4.26±0.82 ^{ab}	<i>F</i> =3.42*	3.48±0.90	<i>F</i> =0.37	3.84±0.91	<i>F</i> =2.60
	Unemployed	3.92±0.86 ^{ab}		3.46±0.66		3.62±1.04	
	The others	3.45±1.37 ^b		3.36±1.29		3.09±1.04	
Place of residence	Seoul	3.65±1.00 ^{N.S.}		3.31±0.92 ^{N.S.}		3.46±0.87 ^{N.S.}	
	Incheon	3.90±0.93	<i>F</i> =2.62	3.39±1.10	<i>F</i> =0.07	3.49±1.00	<i>F</i> =1.00
	The others	4.00±1.01		3.35±0.95		3.65±0.95	
Form of residence	One's own house	3.90±0.96 ^{NS}	<i>t</i> =1.23	3.37±0.99 ^{NS}	<i>t</i> =0.44	3.56±0.94 ^{NS}	<i>t</i> =0.87
	The others	3.71±1.09		3.30±1.03		3.43±0.93	
BMI	Weakness	4.01±0.89 ^{ab}		3.56±0.99 ^b		3.76±0.90 ^b	
	Normal	3.69±1.04 ^a	<i>F</i> =3.17*	3.17±1.01 ^a	<i>F</i> =4.20*	3.37±0.94 ^a	<i>F</i> =4.91**
	Obesity	4.06±1.09 ^b		3.53±0.94 ^b		3.47±1.07 ^{ab}	

Table 5. Continued

Categories		Returning goods or exchange	The method of cooking		Registry number of enterprise	Calory & nutrition indication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Gender	Male	3.48±1.10 ^{NS}	t=-0.35	4.58±0.68 ^{NS}	t=-0.88	4.85±0.41 ^a	t=-2.55**	4.17±0.90 ^b	t=-7.39***
	Female	3.37±1.10		4.47±0.87		4.88±0.37 ^b		4.11±0.82 ^a	
Age	<25	3.40±0.99 ^{NS}	t=-1.60	3.22±0.93 ^{NS}	t=0.45	2.53±1.02 ^{NS}	t=1.94	3.54±1.01 ^b	t=2.22**
	25≤	3.62±1.11		3.16±1.08		2.26±0.94		3.17±1.28 ^a	
Occupation	Student	3.38±1.02 ^{NS}	F=2.32	3.20±0.98 ^{NS}	F=1.05	2.43±1.03 ^{NS}	F=0.46	3.37±1.15 ^{NS}	F=0.75
	Employee	3.82±0.92		3.34±0.91		2.52±0.95		3.64±0.94	
	Unemployed	3.31±1.03		3.00±1.00		2.15±0.90		3.54±1.05	
	The others	3.36±1.29		2.82±1.08		2.45±0.69		3.45±1.13	
Place of residence	Seoul	3.40±0.91 ^{NS}	F=0.23	3.13±0.99 ^{NS}	F=0.51	2.41±0.90 ^{NS}	F=0.23	3.50±0.93 ^{NS}	F=1.91
	Incheon	3.46±1.07		3.19±0.99		2.43±1.00		3.56±1.24	
	The others	3.51±1.09		3.28±0.95		2.51±1.08		3.26±1.09	
Form of residence	One's own	3.43±1.02 ^{NS}	t=-0.83	3.24±1.01 ^{NS}	t=1.54	2.27±0.99 ^{NS}	t=-0.86	2.93±1.04 ^{NS}	t=-0.32
	House								
	The others	3.57±1.07		3.04±0.79		2.59±0.99		3.87±0.97	
BMI	Weakness	3.56±1.04 ^{ab}	F=3.22*	3.29±0.99 ^a	F=5.68**	2.44±1.04 ^{NS}	F=1.77	3.71±1.03 ^b	F=9.98**
	Normal	3.28±1.00 ^a		3.00±0.95 ^a		2.38±0.95		3.09±1.11 ^a	
	Obesity	3.82±1.01 ^b		3.76±0.90 ^b		2.88±1.27		3.82±1.29 ^b	

*p<0.05, **p<0.01, ***p<0.001.

1) All values are Mean±SD

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p<0.05, p<0.01, p<0.001.

3) NS : Not significant.

Table 6. An opinion about current food-nutrition labeling system

N(%)

Degree of confidence	Getting desired information	Degree of belief about indication contents	Reference of food selection	Degree of understanding about indication contents	Whether or not the application later reading
Very so	24(9.5)	21(8.3)	23(9.1)	23(9.1)	15(6.0)
So	65(25.8)	62(24.6)	78(31.0)	66(26.2)	47(18.7)
Ordinary	119(47.2)	104(41.3)	108(42.9)	119(47.2)	117(46.6)
Not so	38(15.1)	53(21.0)	35(13.9)	38(15.1)	58(23.1)
Not very so	6(2.4)	12(4.8)	8(3.2)	6(2.4)	14(5.6)
Total	252(100.0)	252(100.0)	252(100.0)	252(100.0)	252(100.0)

요구하고 있으나 표기사항을 읽고 난 후 적용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아 표기내용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5. 식품영양표시의 확인 정도

Table 8과 같이 식품영양표시의 확인 정도는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다’가 35.4%, ‘대체로 안보는 편’ 32.7%, ‘아예

Table 7. Degree of confidence by variables of subjects

Categories	Getting desired information		Degree of belief about indication contents		Whether or not the application later reading		Reference of food selection		Degree of understanding about indication contents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Gender	Male	3.28±0.87 ¹⁾	<i>t</i> =0.42	3.14±1.03	<i>t</i> =0.46	2.86±0.99	<i>t</i> =-1.61	3.14±0.97 ²⁾	<i>t</i> =-2.42***	3.12±0.92 ^a	<i>t</i> =-2.04*
	Female	3.23±0.94		3.08±0.95		3.05±0.89		3.42±0.87 ^b		3.35±0.88 ^b	
BMI	Weakness	3.29±1.00 ^{NS3)}		3.13±1.01 ^{NS}		3.03±0.88 ^{NS}		3.46±0.80 ^b		3.25±0.88 ^{NS}	
	Normal	3.24±0.88	<i>F</i> =0.07	3.11±0.97	<i>F</i> =0.03	2.86±0.99	<i>F</i> =1.39	3.13±0.97 ^a	<i>F</i> =4.10*	3.23±0.91	<i>F</i> =0.30
	Obesity	3.29±0.47		3.18±0.88		3.19±0.75		3.53±1.12 ^b		3.41±1.00	

p*<0.05, *p*<0.01, ****p*<0.001.

¹⁾ All values are Mean±SD

²⁾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p*<0.01, *p*<0.001.

³⁾ NS : Not significant.

Table 8. Degree of confirmation about food-nutrition labeling

Categories	N(%)
Watch an every section at purchase	11(4.3)
Generally watch	35(13.8)
Swatch or not watch	90(35.4)
Generally not watch	83(32.7)
Not watch at all	35(13.8)
Total	254(100.0)

보지 않는다'와 '대체로 보는 편이다'가 각각 13.8%, '살 때마다 항상 본다'가 4.3%로 전체의 18.1%만이 식품 구입 시 식품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Park & Min(1995)의 조사에서는 69.2%로 나타났고, Chang NS(1997)의 조사에서는 80.7%, Kim et al(1999)의 조사에서는 89.8%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비율이다. 이것은 본 연구의 대상자가 아직 상품구매력이 낮은 20대 연령층이기 때문에 주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보다 확인 정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Schroyer(1973)는 젊고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식품 구매 시 식품표시 확인 빈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변인별 차이점을 본 결과 여성의 확인빈도는 2.99로 남성의 확인빈도 2.20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Table 9). 거주지역에 따른 소비자의 확인 정도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인천지역의 응답자는 2.86으로 기타 지역의 응답자 2.37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용돈에 따라서는 40만원 미만보다 40만원 이상인 응답자가 유의적으로 확인빈도가 높았다.

Table 9. Degree of confirmation by variables of subjects

Categories	Frequency of confirmation	
	Mean±SD	
Gender	Male	2.20±0.86 ^{1)a2)}
	Female	2.99±1.02 ^b
Place of residence	Seoul	2.65±0.95 ^a
	Incheon	2.86±1.10 ^{ab}
	The others	2.37±0.96 ^b
Monthly personal expenses (1,000won/ mon)	<100	2.66±1.00 ^a
	100~200	2.42±0.89 ^a
	200~300	2.58±1.08 ^a
	300~400	3.12±1.22 ^b
	400≤	3.12±1.22 ^b
BMI	Weakness	2.83±1.04 ^b
	Normal	2.37±0.98 ^a
	Obesity	2.71±1.05 ^b

p*<0.05, *p*<0.01, ****p*<0.001.

¹⁾ All values are Mean±SD

²⁾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p*<0.01, *p*<0.001.

BMI에 따른 소비자의 확인 정도는 허약인의 확인빈도가 2.83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상체질의 응답자 확인빈도는 2.37로 가장 낮아 다른 체형보다 확인빈도가 유의적으로 낮았다. 비만인은 2.71로 허약인 응답자보다 다소 낮은 확인빈도를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식품영양표시제도

시행의 목적은 소비자가 제품의 식품영양표시를 통하여 보다 자신에게 적합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소비자들은 실제 제품을 구입할 때 몇가지 항목을 제외하 다른 표시 항목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습관적으로 구매한다는 사례도 있었다(Lee & Yeo 1996). 따라서 정부와 소비자단체의 주도하에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6. 선호하는 표기형태

식품영양표시방법은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므로 표기형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표기형태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10과 같이 '그림 및 그래프 형식'이 70.1%, '표 형식' 24%, '서술형표기' 3.1%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소비자들은 보기에 편리하고 알기 쉬운 형태인 그림 및 그래프 형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Kim SY(1991), Mohr(1986), Rudd (1986)의 연구에서도 모두 그래프형식의 정보가 숫자형식의 정보보다 더 쉽게 이해된다고 하였다. 현재의 식품영양표시 형태는 식품 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보기에 편리한 일정한 표기형태로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7. 식품영양표시제도 정착 시 기대되는 효과

식품영양표시제도가 시행될 때 소비자가 기대하는 효과를

Table 10. The method of sign on food-nutrition labeling

Categories	N(%)
Descriptive type	8(3.1)
Picture or a graph type	178(70.1)
Table type	61(24.0)
The others	7(2.8)
Total	254(100.0)

Table 11. Expected effect of food-nutrition labeling system

Effect of expectation	Proper groceries selection necessary for health is easy	Groceries purchase acid other product and comparison easiness	Quality elevation of a product	A nutritious knowledge elevation
Very important	60(23.9)	31(12.3)	37(14.7)	35(13.9)
Important	97(38.6)	102(40.5)	84(33.3)	58(23.1)
Average	78(31.1)	98(38.9)	95(37.7)	102(40.6)
Not important	13(5.2)	16(6.3)	28(11.1)	47(18.7)
Not at all important	3(1.2)	5(2.0)	8(3.2)	9(3.6)
Total	251(100.0)	252(100.0)	252(100.0)	252(100.0)

분석한 결과 Table 11과 같다. 문항별로는 '성인병 예방 및 식이요법 등 자신의 건강에 필요한 올바른 식품선택이 용이하다' 62.5%로 나타나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식품 구입 시 타제품과 쉽게 비교된다.'가 52.8%, '제품의 질이 향상된다.'가 48.0%, '영양지식이 확대된다.'가 37.0%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식품영양표시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건강유지 면이나 식품구입 측면 그리고 영양지식 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유지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식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였다. 이것은 Park과 Min(1995)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러한 식품영양표시제도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식품업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식품업체에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식품선택으로 균형된 식생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정확한 영양표시를 함과 동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표시된 영양성분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건강에 유용한 제품의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대 남녀 소비자들의 식품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인식 및 이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인천 및 경기 지역 남녀 254명을 중심으로 설문지 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소비자의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인지도, 확인 정도, 항목별 중요도, 신뢰도, 선호하는 표기형태, 제도 정착 시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 소비자들의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43.3%로 50%에도 못 미치고 있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기타 직업 종사자(군인, 프리랜서, 운동선수)가 학생보다, 서울지역이 기타 지역보다, 허약한 사람이 정상인 사람보다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일반인 특히 인지도가 낮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식품영양표시제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20대 소비자들의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확인 정도는 18.1%로 매우 낮았으며, 여성, 서울지역 거주자, 월 40만원 이상의 용돈을 받는 응답자, 허약인 집단의 확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주로 여성이며 공산품 소비 위주의 생활을 하는 도시지역 거주자나 몸이 허약한 사람들이 식품영양표시에 대해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20대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입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표기사항은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 가격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 등은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구입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으로 사료되며 그러나 다른 표기사항에 대한 중요성도 소비자에게 교육함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면, 3.2/5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특히 남성 집단이 여성 집단보다 신뢰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남성 집단을 대상으로 식품영양표시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다섯째, 선호하는 식품영양표시 표기형태는 '그림 및 그래프 형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표 형식', '서술적 표기'의 순이었다. 현재 식품영양표시의 모든 표기형태는 식품업체들에 의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데 추후로는 각 식품업체들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기형태를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겠다.

여섯째, 식품영양표시제도의 정착시 기대하는 효과는 '성인병예방·식이요법 등 자신의 건강에 필요한 올바른 식품선택이 용이하다'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식품 구입시 타제품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제품의 질의 향상 된다' 순이었다. 그러므로 식품영양표시는 앞으로 건강의 문제가 중요시되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특정한 질병이 있거나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본 식품영양표시제도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영양표시제도는 일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영양표시는 대부분이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표시의 차원보다는 식품의 특정영양소나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타사제품과 비교하여 월등히 좋은 식품으로 소비자에게 광고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본다. 따라서 관계기관에서는 영양표시제도의 확립과 활용을 장려하여 업계에는 유용한 제품개발을 독려하고 소비자에게는 소비활동에 있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영양

표시제도의 활용법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문헌

- 김소영 (1991) 영양분석표시 정보형태의 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남상덕 (1987) 소비자주의에 입각한 식품의 표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Chang NS (1997) Food/nutrition attitudes, views and practices of adults in Seoul area. *Korean J Nutr* 30: 360-369.
- Beloian A (1973) A Nutrition labels ; A great leap forward. FDA consumer September 10.
- Chang (Hong) SO (1997a) A study on ate current nutrition labeling practices for the processed foods retailed in the supermarket in Korea. *Korean J Nutr* 30: 100-108. 6.
- Chang (Hong) SO (1997b) A study of the comprehension and preference of consumers to four different formals of nutrition label. *Korean J Nutr* 30: 679-689.
- Chang (Hong) SO (2000) A study on the perceotion use and demand of housewife-consumers for nutrition label. *Korean J Nutr* 33: 763-773.
- Federal Register (1973) Food labeling, final rule January 38: 2124-2164.
- Federal Registe (1973) Food labeling, final rule March 38: 6950-6975.
- Jones JL, Weimer JP (1997) Food Safety ; Homemaker's Attitudes and Practices. *Agriculture Economic Report* 360.
- Kim HS, Baik SJ, Lee KA (1999) Consumers'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food labels. *J Korean Soc Food Sci Nutri* 28: 948-953.
- Lee KH, Yeo JS (1996) 소비자 지향적 식품표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 Lee KH, Yeo JS (1996) Analysis of consumer behavior on using food label. *J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 34: 235-248.
- Levy AS, Schucker RE (1989) Food labeling as an educational device. paper presented at the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food and society. College Station, Texas.
- Mohr KG, Wyse BW, Hansen RG (1986) Aiding consumer nutrition decisions;comparison of a graphical nutrient density labeling format with the current food labeling system. *Home Economics Research* 47-49.
- Park HR, Min YH (1995) A Basic Research for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nutrition labeling with a reference to the consumer awareness. *Korean J Dietary Culture* 10: 155-

1668.

Fark HR, Min YH, Jung HR (1995) A basic reserch for the adaption and implementation of nutrition labeling(Ⅱ), comparative perceptions of consumers, producers and government officials. *Korean J Dietary Culture* 10: 175-184.

Rudd J (1986) Effects of Nutrition Label Format on Consumer Nutritional Decision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47- 49.

Schrayer DU (1978) Consumer response to nutrition label. *Food Technology* p 32-42.

(2004년 1월 12일 접수; 2004년 1월 20일 채택)